

## 대학생이 경험한 가족환경 역경이 취업스트레스를 매개로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적응유연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조 혜 정<sup>1)</sup>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는 대학생이 경험한 가족환경 역경이 취업스트레스를 매개로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매개효과가 적응유연성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의 대학생 68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하였다. 측정도구는 가족환경 역경, 취업스트레스, 적응유연성, 자살생각 변인을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Macro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환경 역경은 취업스트레스를 매개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쳤으며, 취업스트레스는 부분 매개효과를 보였다. 둘째, 취업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적응유연성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셋째, 가족환경 역경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확인된 취업스트레스의 매개효과는 총 적응유연성과 하위 적응유연성인 개인 적응유연성과 환경 적응유연성에 의해 조절되어, 적응유연성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는 가족환경 역경에 의해 취업스트레스가 높아지더라도 총 적응유연성과 개인 적응유연성 및 환경 적응유연성이 높을 경우, 낮은 경우에 비해 자살생각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본 연구는 가정환경 역경, 취업스트레스, 자살생각과의 관계와 더불어 적응유연성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대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 가족환경 역경, 취업스트레스, 자살생각, 적응유연성, 조절된 매개효과

---

\* 이 논문은 2020-2021년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대학회계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주저자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E-mail: chc@gntech.ac.kr)

## I. 서 론

우리나라의 자살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특히 10대에서 30대까지의 사망원인 중 1위가 고의적 자해(자살)이며, 이 중 20대의 고의적 자해(자살) 비율이 51.0%로 청년의 정신건강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통계청, 2020a). 그렇다면 청년들로 하여금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끄는 원인은 무엇인가?. 20대의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상당히 다양하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직면하고 있는 생애주기 과제인 취업과 더불어 이들을 둘러싼 환경에 주목하고자 한다. 인간은 각 생애주기에 주어진 발달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기 또는 역경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 때 이를 극복하기 어려운 개인의 내적 역량 또는 취약한 환경에 놓이게 되면 정신건강이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의 산업구조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대학생들의 취업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2020년 9월 청년 실업률(8.9%)은 전체 실업률(3.6%)의 약 2배 이상이며(통계청, 2020b), 대졸자 실업률은 2009년 14.0%에서 2018년 18.3%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녹록치 않음을 보여준다(김종욱, 2018). 한 조사에 따르면 취업스트레스로 인해 고통받는 대학생이 약 93.8%에 이르렀으며, 언제 취업 될 줄 모른다는 불안감과 오랜 취업준비로 인한 소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리크루트타임스, 2019. 10. 18). 취업스트레스는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만큼(김종운, 지연옥, 2016; 조혜정, 박은아,

이재경, 2017; 홍예진, 박주희, 2015), 대학생 자살생각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대학생들이 겪는 취업스트레스와 자살생각 등의 정신건강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체계 중 하나가 가정이라는 점을 간과하기 어렵다. 성장과정에서 부모의 실직, 빈곤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부모와 다른 가족원의 신체 및 정신질환, 가정폭력, 가족 내 갈등과 대화 부재 등의 역기능적 가족문제와 부모의 사망, 이혼 및 별거 등으로 인한 가족구조의 변화 등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처럼 가족체계에서 발생하는 객관적인 위기상황을 가족환경 역경(family adversity)으로 정의하고 있다(이지희, 2015). 가족환경 역경은 일시적으로 경험할 수 있지만, 때로는 동시적 또는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즉 부모의 이혼으로 한부모가족이 된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빈곤가족이면서 가정폭력 또는 부모의 정신질환, 알코올중독 등의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 가족환경 역경은 혈연관계가 지속되는 한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자녀의 성장과 발달,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대학생들의 취업 시기가 점차 지연되면서 가족환경의 영향은 좀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보여진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겪는 가족환경 역경이 취업스트레스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먼저 가족환경 역경과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 및 자살생각과의 관련성을 보고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가족환경 역경과 취업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의 경우, 가족요인 중 일부 변인 또는 질적연구를 통해 그

관련성을 보고하고 있으나 실증적인 검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숙희(2017)의 질적 연구에 따르면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낮은 대학생일수록 취업준비 비용과 시간 투자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취업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특히 빈곤가정의 청년들은 가족의 경제 상황 때문에 일찍부터 학업보다는 아르바이트에 시간을 쏟고 있었다. 또한 부모와의 애착 수준이 낮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높았고(정구철, 이상학, 2016), 부모로부터 폭력을 경험하거나 부모의 알코올중독 문제로 인해 역경을 경험한 대학생의 경우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였으며, 빈곤가정의 대학생들은 비빈곤가정의 대학생보다 취업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정수남, 권영인, 박진, 은기수, 2012).

다음으로 가족환경 역경과 자살생각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요인을 살펴본 연구(제갈다나, 박재연, 2017)에 따르면 아동기의 학대경험과 방임 이외에도 어머니와의 갈등은 대학생 자녀의 자살생각을 증가시켰다. 대학생 중 일부는 가족 내 불화나 경제적 어려움이 자살충동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이용미, 2015: 403). 또한 대학생들 중 아동기에 부모의 이혼, 부모와의 불화, 부모와의 결별,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성적학대 및 심각한 질병 등 각각의 역경을 경험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자살생각이 약 2배 이상 높았으며(You, Chen, Yang, & Qin, 2014), 우울, 불안 등의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지희, 2015). 이외에도 가족환경 역경을 경험한 청소년의 경우 외현화 및 내현화 문

제를 겪고 있었다(Bakker, Ormel, Verhulst, & Oldehinkel, 2011). 또한 성장기에 경험한 외상 경험은 성인기의 우울, 불안, 자살 생각 및 시도 등에 영향을 미쳤다(박은아, 조혜정, 이재경, 2016; 장은량, 유성은, 2014).

한편,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은 가족환경 역경으로 인해 취업스트레스를 경험하더라도 적응유연성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다는 점이다. 적응유연성이란 역경 또는 위기 상황에서도 적응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능력을 의미한다(Garmezy, 1996). 적응유연성은 인지적, 정서적, 의지적, 영적 측면의 개인 내적 유연성 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학교, 지역사회 등 주변 환경체계에서 제공되는 돌봄 및 기대, 의미있는 상호작용 등과 같은 다양한 보호요인이 포함되어 있다(이해리, 조한익, 2006). 적응유연성은 생애 위기를 극복하도록 돕거나 긍정적으로 성장 및 발달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요인으로서 문제 예방과 치료적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이해리, 조한익, 2006), 정신건강의 보호요인으로 기능한다(이지희, 2015; 장은량, 유성은, 2014). 대학생의 자살시도 경험을 연구한 이용미(2015)의 연구에서는 가족 및 주변 사람들의 지지와 스스로 자신을 추스르는 과정을 통해 자살시도를 극복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 및 환경 적응유연성이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를 조절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조혜정 등, 2017; 홍예진, 박주희, 2015). 이외에도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윤정, 2012).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를 토대로 종합해 보면, 가족환경 역경은 취업스트레스를 매개로 자살생각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여지며, 취업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적응유연성의 조절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선행연구의 경우 외상 경험 중심의 일부 가정환경 역경만을 다루고 있거나 각각의 역경 경험 여부만을 살펴보고 있어, 가족환경 역경을 경험하는 수가 증가할 때 취업스트레스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은 검증되지 않았다. 또한 적응유연성 중 개인 내적 특질 또는 사회적 지지와 같은 환경적 측면 중 일부만을 다루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가족환경 역경이 취업스트레스를 매개로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적응유연성이 취업스트레스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특히 적응유연성은 총 적응유연성 뿐만 아니라 개인 적응유연성과 환경 적응유연성으로 나누어 세부적인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목적을 토대로 한 연구모형은 그림 1에 제시하였으며,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환경 역경이 취업스트레스를 매개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둘째, 취업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적응유

연성(총 적응유연성, 개인 적응유연성, 환경 적응유연성)이 조절하는가이다. 셋째, 적응유연성(총 적응유연성, 개인 적응유연성, 환경 적응유연성)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는가이다. 이를 토대로 대학생의 생애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환경 역경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적응유연성의 매개된 조절효과 검증을 통해 대학생의 자살 예방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 1.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4년제 대학생과 2-3년제 전문 학사과정의 대학생을 포함하여 전국 지역의 대학생 7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온라인 조사에 참여한 대학생에게 먼저 개인 정보 수집과 이용에 관한 동의를 구하였으며, 이에 동의한 응답자 중 성실히 응답한 자료에 한해 분석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자료수는 686부수이다.

### 2. 연구도구

#### 자살생각

자살생각은 Harlow, Newcomb & Bentler(1986)가 개발한 Suicide Ideation Scale에 대해 김형수(2002)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지난 6개월 동안의 자살생각에 관한 내용(예: ‘자살에 대해 생각을 한 적이 있다’, ‘누군가에게 자살하고 싶다는 말을 한 적이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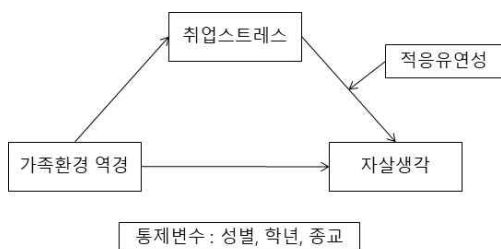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다' 등)으로 총 5문항의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살생각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886이다.

### 가족환경 역경

가족환경 역경은 이해리(2007)의 역경 척도를 대학생을 대상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보완한 이지희(2015)의 '가정환경 역경척도'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환경 역경척도의 14문항 중 가중치가 2-3에 해당되는 12문항을 선별하였으며, 점수의 범위는 0~12이다. 가족환경 역경의 문항은 부모의 사망(2문항), 이혼 또는 별거(1문항), 경제적 어려움 관련 문항(3문항), 부모 및 가족의 신체 및 정신질환(2문항), 사고나 부상(1문항), 가정폭력 및 갈등(2문항), 가족 간의 대화 부재(1문항)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환경 역경을 많이 경험한 것을 의미하며, 가족환경 역경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743이다.

### 취업스트레스

취업스트레스는 대학교 졸업 이후의 취업과 관련된 문제로 인하여 대학생활 중에 신체적 및 심리적인 균형이 깨져 위기, 긴장 및 불안 등을 느끼는 상태이다(강유리, 2006). 본 연구는 코넬대학의 스트레스 측정법(Connell Medical Index: CMI)을 토대로 개발된 황성원(1998)의 취업스트레스 척도를 수정·보완한 강유리(2006)의 취업스트레스 척도를 활용하였다. 취업스트레스의 하위 척도는 학업스트레스(4문항), 성격 스트레스(6문항), 가족환경 스트레스(5문항), 학교환경 스트레스(4문항), 취업불안스(3문항)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2문항

의 5점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평점 처리하여 1~5점 범위 안의 점수로 산출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취업스트레스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944이다.

### 적응유연성

적응유연성은 역경 혹은 위험상황에서도 적응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능력으로, 개인적 특성 이외에도 환경적인 보호요인을 포함하여 개발한 이해리와 조한익(2006)의 '한국 청소년 탄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적응유연성 척도는 총 48문항의 6점 척도이다. 적응유연성의 하위요인 중 개인 적응유연성은 자기효능감, 문제해결, 감정과 충동조절, 공감과 수용, 목표와 희망, 낙관주의, 의미추구, 종교적 영성 등의 8개의 개인 내적 특질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 적응유연성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 또래 등의 환경체계 내에서의 돌봄의 관계와 기대, 의미있는 상호작용으로 8개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의 적응유연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총 적응유연성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943이며, 개인 적응유연성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912, 환경 적응유연성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883이다.

### 통제변수

선행연구에서 대학생 자살생각의 영향요인 중 통제변수로 보고된 변수를 선정하였다(제갈다나, 박재연, 2017; 조혜정 등, 2018). 성별은 남 1, 여 0으로 처리하였다. 학년은 1학년 부터 4학년까지 등간변수로 처리하였다. 종교에서 종교가 있는 경우는 1, 없는 경우는 0으

로 처리하였다.

###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5.0와 SPSS Macro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변수의 특성을 살펴 보기 위해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다중공선성 문제를 최소화하고 해석의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주요 변수를 평균중심화하였다. 둘째, 조절된 매개 효과는 매개효과, 조절효과, 조절된 매개효과 순으로 검증하였다. 매개효과의 검증은 Hayes (2018)의 PROCESS macro model 4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절효과의 검증은 PROCESS macro model 1로 분석하였다. 조절된 매개효과의 검증은 PROCESS macro model 14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배병렬, 2015).

## III. 결과 및 해석

### 1. 연구대상자의 특성 및 주요변수의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 특성 및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연구대상자 중 남성은 53.9%로 여성(46.1%)보다 많았다. 학년의 경우 2학년(44.1%)이 가장 많았고 4학년(32.1%), 3학년(23.9%), 1학년(7.0%) 순으로 응답하였다. 응답자 중 종교가 없는 경우(66.5%)가 있는 경우(33.5%)보다 많았다. 학교 유형 중 4년제 대학생(62.1%)이 2-3년제 전문대학생(37.9%)보다 많았다. 전공계열은

자연·공과계열(37.3%)이 가장 많았으며, 인문사회계열(35.4%), 예술·체육계열(9.7%), 기타(9.0%), 의과·간호(8.0%) 순으로 응답률을 보였다. 주요 변수 중 가족환경 역경은 평균 4.10점으로, 평균 4개 이상의 역경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스트레스는 평균 2.48점으로 ‘보통이다(중간값 3점)’보다는 낮았다. 자살생각은 1.78점으로 중간값 2점보다 낮았다. 총 적응유연성은 3.72점이며, 개인 적응유연성의 평균(3.84점)이 환경 적응유연성의 평균(3.60점)보다 더 높았다. 적응유연성의 평균은 중간값 3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주요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으며, 왜도 및 첨도의 결과도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였다.

### 2. 연구모형의 분석결과

연구 모형은 세 단계로 나뉘어 분석하였다. 첫 번째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통제한 후, 가족환경 역경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취업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표 2 참조), 가족환경 역경을 많이 경험할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높아졌으며( $\beta=.16, p<.001$ ), 취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증가하였다( $\beta=.35, p<.001$ ). 따라서 가족환경 역경은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취업스트레스를 매개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가족환경 역경과 자살생각 간의 총효과(.23), 직접효과(.18)와 간접효과(.06) 모두 유의하여 부분매개모형을 지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환경 역경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직접 효과크기가 간접 효

표 1. 연구대상자의 특징 및 주요변수의 상관관계

| 변수                     | 구분         | <i>n</i> (%) | 변수        | 구분        | <i>n</i> (%) |           |
|------------------------|------------|--------------|-----------|-----------|--------------|-----------|
| 성별                     | 남          | 370(53.9)    | 학교        | 2-3년제     | 260(37.9)    |           |
|                        | 여          | 316(46.1)    |           | 4년제       | 426(62.1)    |           |
| 종교                     | 유          | 230(33.5)    | 전공<br>계열  | 인문사회      | 243(35.4)    |           |
|                        | 무          | 456(66.5)    |           | 자연/공과     | 256(37.3)    |           |
| 학년                     | 1학년        | 42(7.0)      |           | 의과/간호     | 55(8.0)      |           |
|                        | 2학년        | 222(44.1)    |           | 예술/체육     | 67(9.7)      |           |
|                        | 3학년        | 143(23.9)    |           | 기타        | 65(9.5)      |           |
|                        | 4학년        | 192(32.1)    |           |           |              |           |
| 변수                     | a          | b            | c         | c1        | c2           | d         |
| 가족환경 역경(a)             | 1          |              |           |           |              |           |
| 취업스트레스(b)              | .203***    | 1            |           |           |              |           |
| 총 적응유연성(c)             | -.109**    | -.208***     | 1         |           |              |           |
| 개인 적응유연성(c1)           | -.104**    | -.235***     | -         | 1         |              |           |
| 환경적응유연성(c2)            | -.104**    | -.161***     | -         | -         | 1            |           |
| 자살생각(d)                | .271***    | .407***      | -.271***  | -.286***  | -.231***     | 1         |
| <i>M</i> ( <i>SD</i> ) | 4.10(2.48) | 2.48(.78)    | 3.72(.72) | 3.84(.75) | 3.60(.75)    | 1.78(.73) |
| 왜도                     | 1.261      | -.099        | -.312     | -.340     | -.144        | .659      |
| 첨도                     | 1.071      | -.523        | .963      | .935      | .528         | -.257     |

\*  $p < .05$ , \*\*  $p < .01$ , \*\*\*  $p < .001$

표 2. 가족환경 역경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취업스트레스의 매개효과

| 변수        |    | 매개변수 모형<br>(종속변수: 취업 스트레스) |         | 종속변수 모형<br>(종속변수: 자살생각) |         |
|-----------|----|----------------------------|---------|-------------------------|---------|
|           |    | $\beta(se)$                | $t$     | $\beta(se)$             | $t$     |
| 통제변수      | 성별 | -.20                       | -2.43   | -.19                    | -2.50   |
|           | 학년 | .13                        | 3.13    | -.03                    | -.72    |
|           | 종교 | .00                        | .001    | -.03                    | -.04    |
| 가족환경 역경   |    | .16                        | 4.01*** | .18                     | 4.68*** |
| 취업스트레스    |    |                            |         | .35                     | 9.18*** |
| $F$       |    | 8.538***                   |         | 27.816***               |         |
| $adj R^2$ |    | .054                       |         | .190                    |         |
| 변수        |    | $\beta$                    | $se$    | LLCI                    | ULCI    |
| 총효과       |    | .23                        | .039    | .153                    | .308    |
| 직접효과      |    | .18                        | .037    | .102                    | .248    |
| 간접효과      |    | .06                        | .016    | .027                    | .089    |

\*\*\*  $p < .001$

파크기보다 더 크게 나타나, 가족환경 역경이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통제한 후, 취업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적응유연성(총 적응유연성, 개인 적응유연성, 환경 적응유연성)

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3과 그림 2와 같다<sup>1)</sup>. 3개의 모델 모두에서 취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증가하였다. 또한 총 적응유연성( $\beta = -.25, p < .001$ ), 개인 적응유연성( $\beta = -.25, p < .001$ ), 환경 적응유연성( $\beta = -.19, p < .001$ )이 자살생각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으며, 각 적응유연성이 높을수록 자살생

표 3. 취업스트레스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적응유연성의 조절효과

|            |                  | 종속변수 : 자살생각          |          |                       |              |                       |          |
|------------|------------------|----------------------|----------|-----------------------|--------------|-----------------------|----------|
|            |                  | Model 1<br>(총 적응유연성) |          | Model 2<br>(개인 적응유연성) |              | Model 3<br>(환경 적응유연성) |          |
|            |                  | $\beta(se)$          | $t$      | $\beta(se)$           | $t$          | $\beta(se)$           | $t$      |
| 통제         | 성별               | -.14(.05)            | -2.37*   | -.15(.05)             | -2.71*       | -.14(.05)             | -2.53*   |
|            | 학년               | -.02(.03)            | -.74     | -.02(.03)             | -.83         | -.02(.03)             | -.84     |
|            | 종교               | .06(.06)             | 1.12     | .07(.06)              | 1.14         | .04(.06)              | .70      |
|            | 취업스트레스           | .32(.04)             | 9.03***  | .31(.04)              | 8.83***      | .33(.04)              | 9.39***  |
|            | 적응유연성            | -.25(.04)            | -5.65*** | -.25(.04)             | -5.89***     | -.19(.04)             | -4.65*** |
|            | 취업스트레스*<br>적응유연성 | -.15(.04)            | -2.58**  | -.14(.04)             | -1.15(.04)** | -.11(.04)             | -2.72**  |
| $F$        |                  | 25.428***            |          | 26.086***             |              | 23.271***             |          |
| $adj. R^2$ |                  | .205                 |          | .209                  |              | .191                  |          |

\*  $p < .05$ , \*\*  $p < .01$ ,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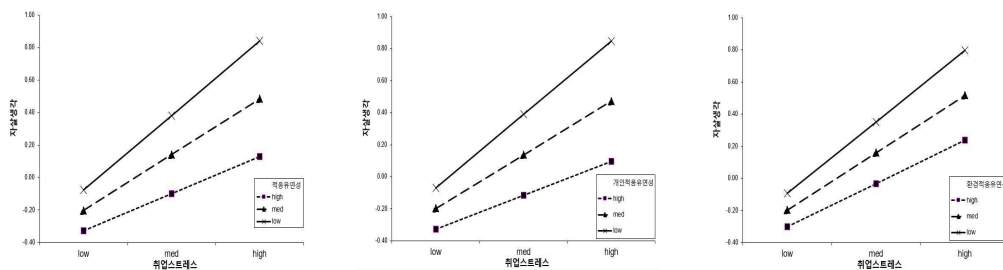


그림 2. 취업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적응유연성의 조절효과

1) 조절변수  $Z$ 의 특정 값에서 갖는  $X$ 의 단순기울기 계산식( $\omega$ )은  $\omega = \gamma_1 + \gamma_3 Z$  이다(배병렬, 2015).

각이 감소하였다. 또한 취업스트레스와 총 적응유연성의 상호작용항( $\beta = -.15, p < .01$ ), 취업스트레스와 개인 적응유연성의 상호작용항( $\beta = -.14, p < .01$ ), 취업스트레스와 환경 적응유연성의 상호작용항( $\beta = -.11, p < .01$ )은 자살생각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즉 총 적응유연성, 개인 적응유연성과 환경 적응유연성이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감소하였다.

세 번째로,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표 4에 제시하였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통제한 후, 가족환경 역경, 취업스트레스, 적응유연성(총 적응유연성, 개인 적응유연성, 환경 적응유연성)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함께 취업스트레스와 적응유연성 간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모든 모델(Model)에서 가족환경 역경 및 취업스트레스는 자살생각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환경 역경을 많이 경험할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대학생의 자살생각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총 적응유연성과 하위요인인 개인 적응

표 4.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                    |                      | 종속변수 : 자살생각  |          |              |          |              |          |
|--------------------|----------------------|--------------|----------|--------------|----------|--------------|----------|
|                    |                      | Model 1      |          | Model 2      |          | Model 3      |          |
|                    |                      | $\beta$ (se) | t        | $\beta$ (se) | t        | $\beta$ (se) | t        |
| 통제                 | 성별                   | -.17(.07)    | -2.37*   | -.18(.07)    | -2.48*   | -.17(.07)    | -2.32*   |
|                    | 학년                   | -.03(.04)    | -.74     | -.03(.04)    | -.74     | -.03(.04)    | -.75     |
|                    | 종교                   | .09(.08)     | 1.12     | .09(.08)     | 1.21     | .07(.08)     | .77      |
| 독립(a)              | 가족환경 역경              | .16(.04)     | 4.24***  | .16(.04)     | 4.30***  | .16(.04)     | 4.31***  |
| 매개(b)              | 취업스트레스               | .32(.04)     | 8.49***  | .31(.04)     | 8.25***  | .33(.04)     | 8.82***  |
| 조절1(c)             | 총 적응유연성              | -.23(.04)    | -5.32*** |              |          |              |          |
| 상호작용1              | 취업스트레스<br>* 총 적응유연성  | -.11(.03)    | -3.31**  |              |          |              |          |
| 조절2(c1)            | 개인 적응유연성             |              |          | -.24(.04)    | -5.62*** |              |          |
| 상호작용2              | 취업스트레스<br>* 개인 적응유연성 |              |          | -.11(.03)    | -3.54*** |              |          |
| 조절3(c2)            | 환경 적응유연성             |              |          |              |          | -.18(.04)    | -4.31*** |
| 상호작용3              | 취업스트레스<br>* 환경 적응유연성 |              |          |              |          | -.08(.03)    | -2.46*   |
| F                  |                      | 24.989***    |          | 25.658***    |          | 23.188***    |          |
| adj R <sup>2</sup> |                      | .228         |          | .233         |          | .216         |          |

\*  $p < .05$ , \*\*  $p < .01$ , \*\*\*  $p < .001$

유연성과 환경 적응유연성은 자살생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적응유연성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취업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효과는 총 적응유연성( $\beta = -.11, p < .01$ ), 개인 적응유연성( $\beta = -.11, p < .001$ ), 환경 적응유연성( $\beta = -.08, p < .05$ )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효과는 총 적응유연성, 개인 적응유연성, 환경 적응유연성의 수준에 따라 달라졌으며, 적응유연성에 의해 완충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조건간접효과(conditional indirect effect: 조절된 매개효과)<sup>2)</sup>를 검증하기 위해 부스트래핑 분석을 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총 적응유연성, 개인 적응유연성, 환경 적응유연성 등 각각의 조절된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은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조절된 매개효과가 있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이는 적응유연성(총 적응유연성, 개인 적응유연성, 환경 적응유연성)이 높을수록 가족환경 역경이 취업스트레스를 매개로 자살생

각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중 개인 적응유연성의 효과크기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Index = -.0181).

또한 가족환경 역경이 취업스트레스를 매개로 자살생각에 미치는 조건간접효과를 각 적응유연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부스트래핑 분석을 하였다(표 6 참조). 모든 수준에서 95% 신뢰구간은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적응유연성의 수준에 따라 효과크기가 달라지는 양상을 볼 수 있다. 즉 대학생이 가정환경 역경을 많이 경험할수록 취업스트레스가 증가하며, 취업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자살생각이 증가하는데, 이러한 매개효과는 총 적응유연성, 개인 적응유연성, 환경 적응유연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적응유연성이 높은 집단일수록 가족환경 역경이 취업스트레스를 매개로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였으며, 적응유연성이 낮은 집단일수록 가족환경 역경이 취업스트레스를 매개로 자살생각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표 5. 조절된 간접효과 검증

| 조절변수     | Index  | Boot SE | 95% 신뢰구간  |           |
|----------|--------|---------|-----------|-----------|
|          |        |         | Boot LLCI | Boot ULCI |
| 총 적응유연성  | -.0168 | .0080   | -.0345    | -.0035    |
| 개인 적응유연성 | -.0181 | .0078   | -.0352    | -.0048    |
| 환경 적응유연성 | -.0125 | .0072   | -.0282    | -.0003    |

2) 조건간접효과에 대한 계산식( $\omega$ )은 다음과 같다(Hayes, 2018).

총 적응유연성 :  $\omega = a_1(b_1 + b_3 W) = .16(.32 - .11 \times \text{총 적응유연성})$

개인 적응유연성 :  $\omega = a_1(b_1 + b_3 W) = .16(.31 - .11 \times \text{개인 적응유연성})$

환경 적응유연성 :  $\omega = a_1(b_1 + b_3 W) = .16(.33 - .08 \times \text{환경 적응유연성})$

표 6. 조절변수값에 따른 매개변수의 조건적 효과크기

| 조절변수        |               | Effect | S.E  | t        | 95% 신뢰구간  |           |
|-------------|---------------|--------|------|----------|-----------|-----------|
|             |               |        |      |          | Boot LLCI | Boot UCLI |
| 총 적응<br>유연성 | <i>m -1sd</i> | .422   | .048 | 8.864*** | .329      | .517      |
|             | <i>m</i>      | .318   | .038 | 8.444*** | .244      | .392      |
|             | <i>m +1sd</i> | .214   | .051 | 4.232*** | .115      | .313      |
| 개인적응<br>유연성 | <i>m -1sd</i> | .422   | .048 | 8.862*** | .329      | .515      |
|             | <i>m</i>      | .311   | .038 | 8.232*** | .237      | .385      |
|             | <i>m +1sd</i> | .199   | .051 | 3.946*** | .100      | .299      |
| 환경적응<br>유연성 | <i>m -1sd</i> | .410   | .048 | 8.465*** | .315      | .505      |
|             | <i>m</i>      | .331   | .038 | 8.771*** | .257      | .505      |
|             | <i>m +1sd</i> | .252   | .051 | 4.992*** | .153      | .352      |

\*\* $p < .001$

이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가족환경 역경이 취업스트레스를 매개로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매개효과가 적응유연성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환경 역경이 취업스트레스를 매개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스트레스는 부분매개효과를 보였다. 즉 가족환경 역경을 많이 경험한 대학생일수록 취업스트레스 및 자살생각이 높았으며, 가족환경 역경을 많이 경험할수록 취업스트레스를 매개로 자살생각이 증가하였다. 이는 가족환경 역경과 자살생각과의 관계를 보고한 연구(You et al., 2014; 제갈다나, 박재연, 2017;

이용미, 2015), 취업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를 보고한 연구(김종운, 지연옥, 2016; 조혜정 등, 2017; 홍예진, 박주희, 2015)의 결과를 지지한다. 대학생은 가정과 학교 등에 의존하는 생활양식에서 벗어나 독립을 준비하는 시기를 살아가지만, 부모는 장기적인 진로 선택에서 또래집단보다 영향력 있는 지지를 제공하는 대상이다(이상희, 2012). 부모와 자녀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진로결정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은 취업에 대한 압박이나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정구철, 이상학, 2015).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가족 내 불화, 갈등, 폭력 등의 역기능적인 가족문제, 경제적 어려움, 이혼 및 별거 등의 가족구조의 변화 등과 같은 가족환경 역경은 대학생들의 자살생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족환경 역경이 커질수록 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경제적 도움 또는 심리사회적 지

지를 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취약한 가족환경은 취업에 대한 압박과 스트레스로 이어져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도피적 수단으로 자살에 대한 생각이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 상담과정에서 취업스트레스와 자살생각 등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선별을 통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자원(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연계함으로써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입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생들이 교내 학생상담센터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상담과정에서 가족환경 역경이 취업스트레스 및 자살생각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학생들의 가족 문제에 대한 개입은 교내 학생상담센터 내 상담서비스만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자원(예: 긴급복지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을 파악하여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역경과 관련된 물리적 및 심리적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둘째, 취업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적응유연성이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총 적응유연성, 개인 적응유연성, 환경 적응유연성이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시켰다. 이는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가 높더라도 중요한 타인들로부터 정서적, 물질적, 도구적, 정보적인 사회적 지지를 받을수록(홍예진, 박주희, 2015), 가족, 친구, 학교, 지역사회와 돌봄의 관계와 기대, 의미있는 상호작용을 할 경우(조혜정 등, 2017)에 자살생각이 감소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본 연구결과는 대학생의 자살문제를 예방하는 데 있어 개인 내적 적응유연성 및 환경 적응유연성을 향상시키는 개입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적응유연성의 개인 내적 특성으로 구성된 적응유연성이 환경 적응유연성보다 자살생각을 더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적응유연성은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능력, 감정과 충동조절, 공감과 수용, 목표와 희망, 낙관주의, 의미추구, 종교적 영성 등 다양한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특성은 취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더라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보다 현실적인 시각을 갖고 주변의 지지를 구하는 적응적인 대처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내적 특성이다. 대학생들이 어려움 극복 효능감이 커질수록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행동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나(박영신, 김의연, 2009), 역경을 극복하도록 돕는 개인 내·외부의 강점과 역량, 자원을 중심으로 한 상담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강점에 기반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 적응유연성의 효과크기보다 적었지만, 환경 적응유연성이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하였다. 따라서 취업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통해 주변의 의미있는 타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교와 정부 간의 협력적인 청년지원정책을 수립하여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경제적 및 사회적 기반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가족환경 역경이 취업스트레스를 매개로 자살생각에 미치는 매개효과가 적응유연성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환

경 역경이 취업스트레스를 매개로 자살생각을 증가시키더라도 적응유연성이 높은 집단일수록 그러한 부정적인 영향은 감소하였다. 적응유연성이 역경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서 보호요인으로 기능한다는 보고(이지희, 2015; 장은량, 유성은, 2014)처럼, 본 연구의 결과는 적응유연성이 대학생의 자살 예방에 있어 중요한 보호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대학생들의 가족환경 역경과 취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개입과 더불어 적응유연성이라는 보호요인을 강화시키는 것이 자살생각의 감소에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가족환경 역경은 대학생들의 개인적인 노력으로 변화시키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가족 이외에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은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습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체계가 가족체계에 의해서만 좌우되지 않고 대학 및 지역사회 내 공공체계의 지원을 통해 적응유연성과 정신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족환경 역경을 조명하고, 취업스트레스를 매개로 자살생각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탐색했을 뿐만 아니라 적응유연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는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및 보호요인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본 연구결과는 자살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대학생의 경우 취업스트레스와 더불어 가족환경 역경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자살생각의 보호요인인 적응유연성은 가족, 친구, 학교, 지역사회 등의 돌봄 및 의미

있는 상호작용과 같은 환경적 측면과 함께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능력, 감정과 충동조절, 공감과 수용, 목표와 희망, 낙관주의, 의미추구, 종교적 영성 등 개인 적응유연성이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 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므로, 적응유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학생 정신건강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몇 가지 제한점이 있어 관련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가족환경 역경을 경험한 시점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가족환경 내 역경은 지속성을 띌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역경을 경험한 수 이외에도 역경을 경험한 시점과 빈도, 지속기간을 조사하여 가족환경 역경의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살생각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지 않았다. 향후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 검증함으로써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근거한 서비스 특성과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결과는 4년제 대학생과 전문대학생을 모두를 포함하여 분석한 것으로, 두 집단 간의 차이는 살펴볼 수 없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4년제와 전문대학생 간의 차이를 비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전국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는 하였으나, 설문조사에 동의한 대학생에 한해 자료수집이 이루어져 편의 표집되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모집단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확률적 표본조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강유리 (2006). 무용전공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종욱 (2018. 4). 청년 졸업자 주요 고용지표 현황. 노동리뷰, pp. 85-88.
- 김종운, 지연옥 (2016).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우울,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12), 1313-1334.
- 김형수 (2002). 한국 노인의 자살생각과 관련 요인 연구. 한국노년학, 22(1), 159-172.
- 리쿠르트 타임스 (2019. 10. 18). 취업생 93.8% 취업스트레스 겪고 있어, <http://www.recruittimes.co.kr/news>에서 2020년 7월 6일 인출.
- 박영신, 김의연 (2009). 한국과 일본 대학생의 스트레스 증상과 관리행동의 비교: 사회적 지원과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6(1), 139-164.
- 박은아, 조혜정, 이재경 (2016). 성인의 아동청소년기 외상경험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 외상후성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7(3), 223-249.
- 배병렬 (2015). SPSS/AMOS/LISREL/SmartPLS에 의한 조절효과 및 매개효과 분석. 서울: 청람.
- 이상희 (2012).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와 진로태도성숙의 관계: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와 부모진로지지의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13(3), 1461-1679.
- 이용미 (2015). 대학생의 자살시도 경험. 대한간호학회지, 45(3), 397-411.
- 이지희 (2015). 대학생 가정환경 역경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 매개효과. 한남대학교 석사논문.
- 이해리, 조한익 (2006). 한국 청소년 탄력성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2), 353-371.
- 장은량, 유성은 (2014). 외상경험자의 탄력성과 자살행동의 관계: 탄력성이 자살행동의 보호요인이 되는가?. 한국심리학회지:임상, 33(2), 299-314.
- 정구철, 이상학 (2016). 대학생들의 부모애착이 인터넷중독에 미치는 영향: 취업스트레스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6), 432-440.
- 정수남, 권영인, 박 건, 은기수 (2012). 청춘 밖의 청춘, 그들의 성인기 이행과 자아정체성: 빈곤청년을 대상으로. 문화와 사회, 12(1), 35-103.
- 정숙희 (2017). 지방 사립대 취업준비생의 스펙 쌓기 경험이야기. 직업능력개발연구, 20(2), 161-194.
- 제갈다나, 박재연 (2017). 대학생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적 측면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청소년학 연구, 24(2), 413-444.
- 조혜정, 박은아, 이재경 (2017).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가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 외적보호를 통한 의미 추구의 매개된 조절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9(4), 85-110.
- 최윤정 (2012).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작용하는 보호요인의 조절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3(3), 77-104.
- 통계청 (2020a). 2019년 사망원인통계. 서울: 통

- 계청 사회통계국.
- 통계청 (2020b). e-나라지표: 취업자수/실업률 추이. <https://www.index.go.kr/> 2020년 12월 18일 인출.
- 홍예진, 박주희 (2015). 자살생각을 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자살생각 수준에 미치는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23(2), 189-210.
- Bakker, M. P., Ormel, J., Verhulst, F. C., & Oldehinkel, A. J. (2011). Adolescent family adversity and mental health problems: The role of adaptive self-regulation capacities. The TRAILS Stud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9(3), 341-350.
- Hayes, A. F. (2018).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perspective* (2nd E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Garmezy, N. (1996). Reflections and commentary on risk, resilience and development. In R. Haggerty, L., Sherrod, N. Garmezy, & M. Rutter. *Stress, risk and resilience in children and adolescence: Process, mechanisms and interventions*(pp. 1-18).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You, Z., Chen, M., Yang, S., & Qin, P. (2014). Childhood adversity, recent life stressors and suicidal behavior in chinese college students. *PLOS ONE*, 9(3), 1-7.

1 차원고접수 : 2020. 10. 03.  
수정원고접수 : 2020. 12. 17.  
최종게재결정 : 2020. 12. 22.

## **The mediating effect of job-seeking str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adversity and suicidal ideation of college students: The mediated moderation effect of resilience**

**Cho, Hye Chung**

Dept. of Social Welfare, Gyeongnam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job-seeking str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adversity and suicidal ideation of college students and to verify the mediated moderation effect of resilience. A questionnaire survey to which 686 college students living in 17 cities and provinces across the nation responded was utilized. Measurement tools are adversities in the family environment, job-seeking stress, resilience, and suicidal ideation. The PROCESS macro for SPSS was used to analyze the model.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f job-seeking str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adversity and suicidal ideation was found. Also, it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suicidal ideation. Secondly, resilience moderated the relation between job-seeking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Lastly,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personal resilience and environmental 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adversity, job-seeking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se results are meaningful in that they examine the relationships among family adversity, job-seeking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and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s of resilience. Moreover, basic data is provided to promote better mental health of college students.

*Keywords:* Family adversity, job-seeking stress, suicidal ideation, resilience, mediated moderation effect